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3, Vol. 32, No. 1, 199-215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 기술 평정척도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문 성 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중 초등학생용(SSRS-S, Elementary Level)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SSRS-S, Elementary Level을 K-SSRS-S:초등학생용으로 번안하고, 서울 및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8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K-SSRS-S:초등학생용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한 집단에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의 4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총 23문항의 K-SSRS-S가 얻어졌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K-SSRS-S:초등학생용의 23문항은 SSRS-S와 유사한 4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SSRS-S의 전체 문항을 모두 사용했을 때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했다. K-SSRS-S:초등학생용은 적절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SSRS-S 타당화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K-SSRS-S에서 높은 평정치를 보고한 아동일수록 높은 정도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정도의 사회적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K-SSRS-S:초등학생용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사용하기에 유용하면서도 심리 측정적 속성 또한 우수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사회 기술,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공존타당도, 예방

---

* 이 논문은 미국 Pearson사의 공식적 허락을 받아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문성원 /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Tel : 063-290-1377 / E-mail : drswmoon@hanmail.net

www.kci.go.kr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들은 여러 가지 급박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여가시간은 중학생들의 여가시간보다 더 적어서 고등학생들의 여가시간과 같은 수준이며, 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다시 공부에 재투자되고 있고(이기봉, 권순용, 박일혁, 2011), 초등학교 교실의 학교폭력 수준은 중고등학교 교실의 학교 폭력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6).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0).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4%가 자살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Min 등, 2012) 우리나라 아동들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한 수많은 대안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을 찾아서 그들이 겪은 피해를 덜어주고자하는 3차적 예방 접근이어서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교육과학부, 2012)나, 'Stop Bullying'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 사이트(교육과학부, 2012)를 보면, 최종적인 관심사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일이다. 선별검사는 그러한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며, 포털사이트는 상담서비스와 연계되어있다. 포털사이트 제목에 예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해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아동에 대한 공식적 도움은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해야만 주어진다. 즉, 아동 스스로가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 어떤 전문적인 도움도 아동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특정 아동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3차적 예방에서 그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시도되어야 한다. 취약한 아동을 도와주는 2차적 예방과, 문제의 발생자체를 막고 아동의 전반적인 힘을 키워주는 1차적 예방이 추가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이 모두 고르게 제공될 경우 아동에게는 최대한의 긍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Walker & Shinn, 2002). 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이미 '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운동을 통해 어떤 부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Catalano 등, 2002).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널리 실시하는 일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건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Weissberg, Kumpfer & Seligman, 2003).

위험한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하여줄 수 있는 보호요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술이다(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1994). Catalano등(2002)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켜주고, 친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할 기회를 늘려주어야하며, 기술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 아동기의 사회적 기술은 미래의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예측 변인이며, 예방이나 발달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인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 적응 지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적응 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www.kci.go.kr

수행이 필수조건이고, 적절한 사회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필수조건이다(Cavell, 1990). 따라서, 아동의 적응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다.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 과제 내에서 한 개인이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공포증을 가진 불안장애의 치료에서도 사회기술훈련은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양윤란, 2008), ADHD 아동의 치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오혜선, 채규만, 김명식, 2007). 그러나, 사회적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가장 결핍되어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많은 아동들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형제자매의 숫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겪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당수의 아동들이 아주 작은 수로 이루어진 가정에 속해있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습과 관련된 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또래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정규유치원 과정 대신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동들도 많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또래들과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수의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현재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에서는, 이처럼 주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반면,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필수 사회적 기술이 없는 사람도 즉흥적인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한 사회적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상에서 보내면서(문성원, 2002), 결국에 가서는 더 큰 대인관계 손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문성원, 김성식, 2004). 말하자면, 현재의 사회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도 과정적으로도 모두 대단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성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아동에 대한 개입은 아동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적 어려움이 사회적 기술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만일, 기술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다면,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심리교육프로그램이며,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평가해내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박난숙, 오경자(1992)가 Matson(1983)의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 MESSY'를 번안한 것이 있지만, 사회적 기술을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두 범주로만 나누고 있어서 구체적 기술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김용석과 홍지영 (2007)이 Danielson 과 Phelps(2003)가 개발한 'Children's Self-Report Social Skills Scale (CS)'를 우리나라 아동용으로 번안해서 개발한 척도는, 사회적 기술 여부와 사회적 지위를 묻는 질문들이 뒤섞여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규범, 호감, 사회적 미성숙이라는 하위

www.kci.go.kr

요인들이 아동기의 가장 대표성 있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접근은 의학적 모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수행을 보이고 있는가보다는 일정 역치 이상으로 증상을 발달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척도를 이용해서 아동을 평가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때, Gresham과 Elliot (1990)의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개입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가 도구중 가장 포괄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Demary등, 1995). 무엇보다도 SSRS는 하나의 척도를 이용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 행동을 모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의 확인에 비중을 둔 의학적 모형뿐만 아니라 강점을 육성하는데 강조점을 둔 유능성 모형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척도들이 모두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행동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접근이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행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SSRS는 개입 계획과 병행해서 사용할 때 더욱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SSRS는 하위 요인의 구성에서도 다른 척도들과 구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SRS의 하위 요인은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의 네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하위 척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행동들은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행동들이다. 그러나, 사회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 적절성, 중요도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만큼, 미국에서 개발된 SSRS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철저한 타당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RS Student Form (SSRS-S) Elementary Level을 번안하여 얻어낸 K-SSRS-S:초등학생용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정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K-SSRS-S:초등학생용에서 얻어진 요인구조가 SSRS-S:element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K-SSRS-S:초등학생용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SSRS-S:초등학생용의 타당화를 위해 세 단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K-SSRS-S:초등학생용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K-SSRS-S:초등학생용의 교차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구조를 이용하여 또 다른 표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확인적 요인분석까지 모두 마친 최종 문항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기술 평균을 비교하고,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방 법

절차 및 분석 방법

아동 한 명 당 학생용 설문지 1부와 부모용 설문지 1부가 각각 배부되는 방식으로, 서울

www.kci.go.kr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용 설문지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학생용 설문지는 K-SSRS-S:초등학생용과 자아존중감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두 차례의 요인분석을 위해, 학생용 설문지는 아동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830개의 자료를 홀수 번째 아이디를 가진 집단과 짝수 번째 아이디를 가진 집단으로 나누고, 홀수 번째 아이디를 가진 415개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하였고, 짝수 번째 아이디를 가진 415개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정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다. SSRS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Gresham & Elliot, 1990),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 중 Direct Oblimin(δ=0)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1.0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 및 문항들이 또 다른 표본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1.0의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K-SSRS-S:초등학생용을 위한 최적의 요인구조와 문항들을 확정한 후에는, SSRS-S: Elementary Level의 타당화 과정(Gresham & Elliot, 1990)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K-SSRS-S:초등학생용의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K-SSRS-S:초등학생용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K-SSRS-S:초등학생용과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SSRS 타당화연구(Gresham & Elliot, 1990)에서는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SRS-S: Elementary Level과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PHCSCS)(Piers, 1984)과의 상관을 다루었으나, PHCSCS는 국내에서 아직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다양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대상

서울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급(3학년 3개 학급, 4학년 11개 학급, 5학년 11개 학급, 6학년 9개 학급)에 속하는 학생들 830명(여학생 408명, 남학생 409명, 성별 미표시 13명)이 K-SSRS-S:초등학생용에 응답했다. 830명 응답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8세(SD = .95)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415명 자료(여학생 206명, 남학생 202명, 성별 미표시 7명)에서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8세(SD = .95)이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415명 자료에서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8세였다 (SD = .94).

도구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학생용(K-SSRS-S:초등학생용).

Gresham과 Elliot(1990)의 SSRS중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초등학생용(Elementary Level) SSRS중 학생용(Student Form, SSRS-S)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

www.kci.go.kr

다. 초등학생용 SSRS-S는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기술을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조절의 4요인 구조로 평가한다. SSRS-S에서는 10개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문항들은 문항 하나가 2개의 요인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평가는 빈도 평정과 중요도 평정의 두 가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빈도 평정에서는, 문항에서 주어진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결코 하지 않는(0)', '간혹 하는(1)', '매우 자주 하는(2)'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중요도 평정에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0)', '중요한(1)', '결정적인(2)'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평정 결과만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S 초등학생용)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학부 과정까지 마친 이중언어자와 동시통역 학위 과정을 마친 전문 번역자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 임상심리전문가인 연구자가 SSRS-S: Elementary Level의 원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박사 학위과정까지 마친 이중언어자가 번역한 문항들을 다시 검토하였고, 국내 학부과정의 이중언어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들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영어로 된 원 문항과 한글에서 영어로 역번역된 문항들 간의 일치성 정도에 대해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5점 척도에 평정을 하였다. 평균 3점미만의 평정을 받는 문항은 없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초등학생용 K-SSRS-S 문항이 완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Rosenbberg Self Esteem Scale; RSES).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해당문항에 강하게 긍정하는 경우 4점에,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 1점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척도핸드북 II(2000)에 수록된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평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타당화가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 척도이다(이자영 등, 2009). 이자영 등(2009)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 시에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8번 문항에 대한 독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반응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8번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척도의 신뢰도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자영 등(2009)의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8번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에 대한 반응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 분석

분석에 앞서서 먼저 SSRS-S: Elementary Level을 구성하고 있는 총 34개의 문항들이 K-SSRS-S:초등학생용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 문항과

www.kci.go.kr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반영하는 r_{it}와, 전체 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r_{it}를 검토한 결과,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은 모두 적정 범위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r_{it}=.19～.48). 따라서, SSRS-S: Elementary Level의 34문항 전체의 상관계수 행렬을 요인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tlett의 구형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 X_{561} = 2420.7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지수는 사회기술 영역이 .88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George & Mallery, 2001).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Kaiser(1960) 방식과, Horn(1965)의 평행분석, Cattel(1966)의 스크리검사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효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1960) 방식에 의해 총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평행분석 결과에서는 9개의 요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34개의 문항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인의 수효로서 10개와 9개는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스크리 검사의 결과를 다시 고려하였다. 스크리 검사 결과는 요인의 수와 관련된 명확한 꺾은 점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요인의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와 5개에서 6개로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더 컸다. 세 가지 방법들 각각이 모두 다른 예상치를 산출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요인의 수효를 3개 ～ 10개로 정하고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들을 모두 비교 검토하였다.

주축 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δ=0)방식으로 사각 회전하는 방법으로 공통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SRS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수의 수치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문항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직교회전 방법을 사용한 SSRS의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문항 선택을 위해서는 구조계수와 형태계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 요인에 문항의 숫자가 최소한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만 요인으로 인정하였다.

위 기준에 의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검토하자, 대부분의 요인분석 결과들은 4개의 요인 구조를 산출해냈으며, 각 요인에 속한 구성 문항들 또한 서로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요인수효를 4개로 고정시킨 요인분석 결과에, SSRS-S의 원 요인 구조와 요인수효를 다르게 고정한 요인분석들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23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들 23문항과 원래 SSRS-S: Elementary Level의 사회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34문항간의 상관은 .97(p< .0001)로 나타났다.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58～.69의 범위에 있었다. Gresham과 Elliot(1990)이 .51～.83 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K-SSRS-S: 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는 유사한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각으로 회전된 K-SSRS-S: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 요인들에 대한 형태계수와 구조계수,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K-SSRS-S:초등학생용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

www.kci.go.kr

표 1. 사각으로 회전된 K-SSRS-S: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요인 형태(구조) 계수와 신뢰도계수, 문항별 평균

문항	척도 전체 α=.81	ssrs	요인				*M*	*SD*
			1	2	3	4	1.16	.28
	요인1. α=.66							
17	경청	E	**.56(.55)**				1.45	.62
20	칭찬	E	**.55(.57)**				1.45	.57
26	공감	E	**.54(.55)**				1.44	.58
5	안쓰러움	E	**.47(.47)**				1.50	.58
29	차이 수용	E	**.31(.43)**				1.15	.59
	요인2. α=.61							
21	선생님 말씀	C		**-.50(-.58)**			1.34	.54
15	어른 말씀	C, E		**-.43(-.50)**			1.45	.57
8	책상 관리	C		**-.42(-.47)**			1.24	.62
22	활동	CA		**-.37(.49)**			1.26	.63
10	숙제	C, A		**-.33(.40)**			1.18	.64
	요인3. α=.58							
7	견해차이	S			**.41(.46)**		.85	.70
32	토론참여	C			**.38(.47)**		1.13	.66
28	놀림상황	S, E			**.38(.36)**		.94	.73
18	문제 상황	C			**.36(.38)**		1.10	.67
4	수업중 딴 짓	S, A			**.36(.34)**		1.04	.63
19	논쟁 마무리	S			**.34(.39)**		1.13	.64
12	남들이 화낼 때	S			**.33(.43)**		1.07	.64
	요인4. α=.69							
14	호감 표현	E				**.58(.52)**	.67	.73
11	자기소개	S				**.49(.51)**	.69	.70
23	대화 시작	A				**.36(.43)**	1.29	.64
31	놀이 초대	A				**.33(.39)**	.95	.77
16	칭찬에의 반응	A				**.30(.42)**	1.01	.68
1	친구 사귀기	A				**.30(.39)**	1.42	.51

주. 원 척도에 속한 4 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assertion C: cooperation E: empathy S: self-control

www.kci.go.kr

펴보고, 이를 SSRS-S Element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비교하였다. 먼저,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5개의 문항 모두 SSRS-S Elementary Level의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항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이는 행동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요인1은 공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5개의 문항은 모두 SSRS-S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는데, 이들 문항들 중 3개의 문항은 협동성 요인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감이나 주장성 요인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항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공감적 행동으로 포함시킨 것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활동을 마치는 행동 혹은 숙제를 제시간에 끝내는 행동도 주장적 행동으로 포함시킨 SSRS-S의 요인 할당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위에서 말한 3개의 문항들은 Gresham과 Elliot (1990)이 정의하는 협동적 행동, 즉,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행동에 더 가깝다. 따라서, 요인 2는 협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7개의 문항들은 5개는 SSRS-S Elementary Level의 자기조절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었고, 2개는 협동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었다. 문항들을 검토해본 결과, SSRS에서 협동성 요인에 포함되었던 이 문항들은,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SSRS-S Elementary Level에서 정의한 자기조절에 개념적으로 조금 더 가까웠다. 따라서, 요인3은 자기조절이라고 명명했다.

요인 4에 포함된 6개의 문항들은 그중 4개는 SSRS-S Elementary Level의 주장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이었고, 나머지 2개의 문항 또한 주도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인4는 주장성 이라고 명명했다.

K-SSRS-S:초등학생용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K-SSRS-S: 초등학생용의 하위 척도들 모두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K-SSRS-S:초등학생용의 하위 척도들 간의 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표 2. K-SSRS-S:초등학생용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주장성	협동성	공감	자기조절	사회기술전체
주장성	1.00	.31***	.34***	.35***	.72***
협동성		1.00	.39***	.41***	.72***
공감			1.00	.29***	.63***
자기조절				1.00	.76***
사회기술전체					1.00

*p<.05, **p<.01, ***p<.001

www.kci.go.kr

415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4요인 구조에 대해 최대우도추정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요인 구조 모형 및 분석을 통해 얻은 표준화된 회귀 계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얻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적합도 지표를 사용했다. 첫째, 절대적합도 지수로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사용하였고, 둘째, 상대적합도 지수로 Tuker-Lewis Index(TLI), compari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했다. 절대적합도지수인 RMSEA는 값이 커질수록 합치도 나쁨을 의미하고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RMSEA=.03으로 나타났고,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나 CFI는 .90이 넘으면 좋은 합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Kline, 2010), 이 연구에서는 두 지수 모두 .90이 넘었다. 이 표본에 SSRS-S: Elementary Level의 원문항과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도 우수한 적합도 지수가 산출되었지만, 두 모형을 비교했을 때 K-SSRS-S:초등학생용을 사용했을 때의 적합도 지수가 더 우수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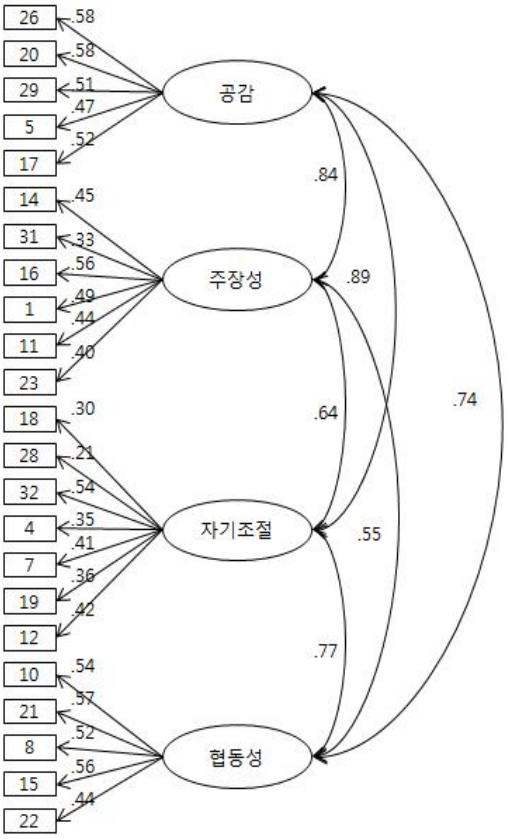

그림 1.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성차

SSRS에서와 동일한 양상의 성차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서 얻은 자료에도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척도 평균 점수의 성차를 비교하였다. 사회기술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위척도별로도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하였다. 하위척도중에서는 공감척도와 자기조절척도, 협

표 3.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적합도 지수들

	X^2	*df*	*p*	TLI	CFI	RMSEA
K-SSRS-S	333.634	224	.00	.91	.92	.03
SSRS-S	809.527	521	.00	.86	.87	.04

www.kci.go.kr

표 4. 성별에 따른 K-SSRS-S:초등학생용의 평균 비교

	여학생(n=202)	남학생(n=207)	
K-SSRS	*M(SD)*	*M(SD)*	*t*
주장성	1.07(.41)	1.02(.39)	-1.27
공감	1.51(.38)	1.31(.41)	-5.10***
협동	1.39(.39)	1.28(.38)	-2.86**
자기조절	1.14(.34)	1.01(.35)	-3.71***
전체	1.25(.29)	1.14(.28)	-4.21***

*p<.05 **p<.01 ***p<.001

표 5. K-SSRS-S:초등학생용 전체 척도및 하위 척도들과 자존감척도와의 상관

	K-SSRS-S:초등학생용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	사회기술전체
자존감	.19***	.32***	.21***	.20***	.31***

*p<.05 **p<.01 ***p<.001

동 척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RSES와의 관련성

K-SSRS-S: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RSES(1965)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SSRS-S: Elementary Level과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PHCSCS) (Piers, 1984)과의 상관이 .30이었던 점을 비교할 때, K-SSRS-S: 초등학생용과 RSES(1965)와의 상관 또한 .31(p<.0001)로 나타나 K-SSRS-S:초등학생용은 SSRS-S: Elementary Level과 비슷한 양상으로 자기 개념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1990)이 만든 SSRS-S Elementary Level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K-SSRS-S:초등학생용의 최종 문항을 얻었고, 확정된 K-SSRS-S:초등학생용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기술의 정도를 비교하여 원래 SSRS-S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으며, RSES와의 상관을 분석하여 SSRS-S가 그랬던 것처럼 K-SSRS-S 또한 자기 개념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SSRS-S:초등학생용

www.kci.go.kr

은 서로 상관되어 있는 4개의 요인을 산출해 냈다. K-SSRS-S:초등학생용은 SSRS-S::Elementary Level과 유사하게,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의 4개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분석과정을 거치며 원래 34문항으로 이루어졌던 SSRS-S Elementary Level이 23문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요인들은 원척도인 SSRS에 비해 개념적으로 훨씬 더 명료해졌다. SSRS-S의 경우 총 문항수는 34문항이나 네 개의 하위 척도들이 동일하게 각기 10개의 문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문항들은 하나 이상의 하위 척도에 할당되어 있었고, 일부 문항들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요인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나, K-SSRS-S에서는 하나의 문항은 하나의 척도에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적합도 지수도 매우 우수했고, K-SSRS-S:초등학생용의 23문항을 사용했을 때가 SSRS-S: Elementary Level의 34문항을 사용했을 때 보다 모형 적합도 또한 더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사회기술을 평가할 때는 SSRS-S의 원문항들과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K-SSRS-S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SSRS-S:초등학생용은 성차에 따른 비교나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관련성에서도, SSRS 타당화 연구(Gresham & Elliot, 1990)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여학생의 수행이 남학생의 수행 보다 더 높았던 Gresham과 Elliot(1990)의 SSRS 타당화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Gresham 과 Elliot(199)은 여학생들이 사회적으로는 더 유능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SSRS-S:초등학생용과 RSES와의 관계 또한 SSRS-S Elementary Level과 PHCSCS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K-SSRS-S:초등학생용을 통해 측정된 아동의 사회기술 또한 자기개념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의 사회기술을 높게 평정한 아동은 자기개념에 대해서도 높은 평정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K-SSRS-S:초등학생용은 SSRS-S Elementary Level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척도이고, SSRS-S Elementary Level보다 우리나라 아동들을 더 잘 설명해내는 척도이다. 특히, K-SSRS-S:초등학생용은 핵심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네 개의 독립된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다.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요인구조가 SSRS-S의 요인구조와 매우 유사하고, 이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료를 매우 잘 설명해냈다는 점은, 이 네 개의 요인이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 아동과 한국 아동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차적 예방적 관점에 기초한 전반적인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실시하기위해서든 혹은 취약한 아동을 선별해내기위해서든,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는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넘어서서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먼저,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

www.kci.go.kr

해볼 수 있다. K-SSRS-S:초등학생용이 포괄하고 있는 네 개의 요인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요인은 협동성 요인이다. 협동성은 학생이 학교라는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아동의 적응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안에서는 중요하게 교육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응답자료에서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확인된 기술이다. 미국의 경우 협동성 요인을 통해서 평가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반드시 아동이 학습해야만 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모두 협력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위반 시에는 단계적인 처벌이 가해지도록 명확히 규정되어있다(NYC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가령, 제시간에 숙제를 완성해내는 일은 아동이 반드시 책임감있게 해내야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에 관해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부모는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숙제를 해낼 수 있도록 환경적인 조건을 마련해야한다.

사실 협동성 요인은 Kohlberg(1974)가 말하는 도덕성 발달과도 관련이 깊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르면, 아동기는 전인습적 수준과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은 처벌을 피하기위해서 규칙과 권위에 복종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단계를 거치며, 최고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동이 학교의 규칙이나 지시에 따르는 행동은 도덕성발달의 첫 시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행동을 아동이 제대로 해내는 일은 아동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학교에서는 아동이 혼자 힘으로 완전히 해낼 수 있는 내용과 분량의 숙제를 부과해야하고 가정에서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이를 해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격려를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협동성 기술이 아동의 장기적 발달과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덕분에 아동의 인지적 발달 이외의 부분은 학교나 학부모들의 관심에서 다소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동의 발달은 결국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 그리고 도덕적 발달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생의 학업적 성취에 의해서 학교생활의 성공여부가 평가받는 현 학교 시스템에서, 아동들의 사회기술 보유 정도가 자존감 정도와 서로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 그만큼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기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인 자존감이 성공적인 사회적 수행의 결과인지 혹은 성공적인 사회적 수행의 결과로서 긍정적인 자존감이 획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은 개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요구를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학생들안에는 성별에 따른 하위 집단이나, 가족의 형태에 따른 하위 집단을 비롯하여 여러 하위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집단은 각기 다른 차별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개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안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 집단의 사회기

www.kci.go.kr

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여러 단계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능을 논함에 있어서 성차는 특히 중요한 변수이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또 사회적 지지원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문성원(2009)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지각된 친구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냈지만,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기능상으로도 성차가 크고,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영향 받는 정도도 성차가 크다면,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입은 반드시 성차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기술 프로그램들이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들의 상이한 욕구 내용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킨다면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훨씬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 관해서는, 사회적 기술과 발달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ADHD 관련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최진오, 2011), 자폐증 유병율이 2.6%에 달하는 등(Kim 등, 2011)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K-SSRS-S: 초등학생용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 정서행동 발달 선별 검사 및 관리 매뉴얼. http://www.mest.go.kr/web/285/ko/board/view.do?bbsId=48&mode=view&boardSeq=28324

김용석, 홍지영 (2007). 한국어판 아동용 사회기술 척도의 개발과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24, 178-206.

문성원 (2002).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문성원 (2009).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조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동간의 관계: 성별 모형의 의한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731-758.

문성원, 김성식 (2004). 아동을 위한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1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61-77.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6). 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양윤란 (2008). 사회공포증 증상과 사회기술의 관계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47-959.

오혜선, 채규만, 김명식 (2007). ADHD 성향 아동의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1-37.

이기봉, 권순용, 박일혁 (2011). 저소득층 아

www.kci.go.kr

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장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최진오 (2011). 초등학생들의 ADHD 성향과 사회기술 수준간의 관계. 아동교육, 20(1), 265-278.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M., Lonczak, H. S., & Hawkins, J. D. (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Retrieved August 22, 2002, from http://aspe.hhs.gov/hsp/PositiveYouthDev99/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1994).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In R. J. Haggerr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mary, M. K., Ruffalo, S. L., Carlson, J., Busse, R. T., Olson, A. E., McManus, S. M., & Leventhal, A. (1995). Social skills assessmen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ix published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4). 648-671.

George, D. & Mallery, P. (2001).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Simple Guide and Reference.* Allyn & Bacon.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 179-185.

Kaiser,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Kim, Y. S., Leventhal, B. L., Koh, Y. J., Fombonne, E., Laska, Lim,. E. C., Chen, K-A., Kim, S-J., Kim, Y-K., Lee, H., Song, D-H., Grinker, R. R. (2011). Prevalence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a total population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8*, 904-912.

Kohlberg, L. (1974). Education, Moral Development and Fai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4*(1), 5-16.

Min, H. J., Jon, D-I., Jung M. H., Hong, N., Song, M. A., Kim, Y. S., Harkavy-Friedman, J. M., Im, H-J. & Hong, H. J. (2012). Depression,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rst graders: a school-based cross-sectional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53*(8), 1145-1152.

NYC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Discipline Code.*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T: Princeton.

www.kci.go.kr

Walker, H. M. & Shinn, M. R. (2002). Structuring school-based interventions to achieve intergrated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prevention goals for safe and effective schools. In M. R. Shinn, H. M. Walker & G. Stoner (Eds.), *Interventions for Academic and Behavior Problems II: Preventive and Remedial Approaches*. NASP Publications

Weissberg, R. P., Kumpfer, K. L, & Seligman, M. E. (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8,* 425-432.

원고접수일 : 2012. 7. 17.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8. 09.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2. 04.
게재결정일 : 2013. 1. 2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3, Vol. 32, No. 1, 199-21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Elementary Level, Student Form(K-SSRS-S: Elementary Level)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a sample of 830 children in South Korea. This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Data from one group were subjec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data from the other group were subjected to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were also used to test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SSRS. EFA yielded four factors, consisting of 23 items in total: empathy, assertion, self-control, and cooperation. CFA confirmed this factor structure and showed that it was similar to that of the original SSRS, but also showed that the K-SSRS scores explained more variance in the data than the SSRS scores did. The K-SSRS ha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Its scores showed a significant and positive association with scores for self-esteem. In addition, girls showed higher social functioning than boys. In conclusion, the K-SSRS is useful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skill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t ha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Key words : social skill,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prevention, children

www.kci.go.kr